

다층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농업 실천사례의 특성 연구

유리나^{1*}, 황수철²

¹세종특별자치시 터미널안길 60 (사)농정연구센터 선임연구원

²세종특별자치시 터미널안길 60 (사)농정연구센터 소장

[서론]

이 연구는 국내 사회적농업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실천양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다층적 관점(multi-level perspective)에 근거해 바라본다. 본 글에서는 사회적농업을 농업 혹은 농촌자원을 매개로 사회적배제된 이들을 통합하는 실천으로 본다. 그리고 사회적농업 실천을 매개로 지역사회 내외부 주체들과 연대하고 협업하면서 사회적배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주목하며 국내 사례의 특징을 검토한다.

[자료 및 방법]

각종 연구보고서, 잡지, 신문기사 등을 통해 사회적농업 실천사례로 소개된 10개 경영체를 분석대상으로 한다. 면접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Miles & Huberman(1994)에서 제시한 질적 자료의 분석과정을 따라 정리하였다. 코딩, 범주화, 도식화 과정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각 사례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농업 활동의 시작단계에서 나타나는 동기와 목적, 사회적농업에 대한 인식, 지식과 자원의 조달방식, 경계확장자의 역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.

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. 첫째,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 사회적농업을 시작한 사례에서는 사회적농업을 농업·농촌자원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의 연대와 통합을 모색하는 활동으로 바라본다. 그리고 그 인적·물적자원 조달방식도 개별주체의 실천이 아니라 농장 간, 마을 단체와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진다. 이러한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과 조직망이 촘촘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, 사회적농업 실천이 사회통합과 혁신의 틈새공간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.

둘째,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비전으로 시작한 사례에서는 지역 내 연대망이 약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필요를 해결하고 협회, 연구회, 교육기관 등의 공식적 루트를 통해 지식을 조달한다. 혹은 스스로 새롭게 지역 내 연대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한다. 귀농·귀촌인이나 6차산업에 관심을 갖고있거나 이미 하고있는 경영체의 경우 이러한 경로로 갈 가능성이 높다. 관련 정책 설계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할 실천유형이다.

셋째,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개별주체와 지자체의 관심이 맞물려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사례에서는 단위 농장에서 사회적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고, 이러한 활동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경계확장자의 역할이 부각된다는 특징이 있다.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지원이 없거나 축소되어도 그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떠한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지가 관건이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(과제번호: PJ01355201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.

*주저자: Tel. 044-862-9209, E-mail. linayoo29@daum.net